

중소 화학기업도 국제유가 직격탄!

산업연구원, Dubai유 39.9달러에 채산성 악화 ... 48달러는 경영곤란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유가 수준은 배럴당 평균 39.9달러(두바이유 기준), 경영이 곤란해지는 가격은 48달러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03년 4/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응답기업의 76.3%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석유·화학, 철강 업종은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70% 가량이 유가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판매시장별로는 수출 위주 중소기업은 83.3%가, 내수기업은 71.9%가 채산성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유가 수준은 중동산 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배럴당 39.9달러, 경영이 곤란해지는 가격은 평균 48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최근 40달러에 육박한 유가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유가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은 원·부자재가격, 원료비, 운송비 등 비용 상승(68.4%)을 지적하는 중소기업이 많았으며, 비용상승분을 공급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시기는 비용상승 요인 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곧바로 반영은 16.6%, 1개월 이내에 반영한다는 대답은 6%로 조사됐다.

유가인상분을 공급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비율은 3% 미만인 36%, 3-5% 미만인 26.6%로 나타나는 등 5% 미만을 반영한다는 대답이 62.6%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고유가에 따른 대외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내 비용절약 캠페인 등 비상계획을 실시중인 중소기업은 29%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33.3%)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상계획 실시 비율이 낮았다.

<화학저널 2005/02/01>